

# 헤럴드 기어 변호사

**HAROLD J. GERR**  
Attorneys at Law

자동차 혹은 트럭사고,  
척추나 디스크에 관련 된 사고,  
공사현장 사고, 배가 부러진 사고,  
범죄로 희생양이 된 사고,  
각종 상해, 사망사고

1-877-249-4600

47 Raritan Ave. Highland Park. NJ

# 은빛 요양원

풍요로운 노후의 삶을 도와드립니다



풍부한 경험과 수준 높은 전문가 서비스  
가정 같은 또 하나의 생활공간  
간호, 간병, 전문 재활치료  
한국문화 정서와 여가 활동

한국어 직통

**732.770.0609**

www.은빛요양원.com

16년 이상의  
경험과 노하우



**준 풀턴 부동산**  
908-295-7053

준 원출 풀턴  
Sales Associate  
Re/Max Instyle Realty  
june@instylerealty.com



1378 Route 206 Suite 202, Skillman, NJ 08558 junefulton@remax.net

# KWIK 퀵모기지

주/택/융/자/전/문

다양한 융자상품, 전화상담 환영

Gabriel B Park (NMLS 1161224) Senior Loan Officer

Direct (908) 293-2215

gpark@kwikmtg.com / Licensed NJ NY PA CA FL CT MD VA TX

# VESTA-OH

Kitchen & Bath Renovation

부엌, 욕실 전문그룹

오용운 토마스 | m 917-662-8353 | kitchenoh@hotmail.com

# 은퇴플랜 및 재정설계 컨설팅

Advisors U Trust, LLC

401k, IRA, Annuity (개인연금)  
생명보험, 매디케어 & 건강 보험  
자동차 주택 건물 비즈니스 보험

박가브리엘 (732) 865-1597  
Licensed in NJ & NY advisorUtrust@gmail.com

# 에디슨 현대정비 Hyundai auto repair

김도영 (Philip Kim)  
C/P : 732-853-5696  
Tel : 732-543-1110  
1808 Woodbridge Ave. (Rt. 514)  
Edison, NJ 08817

# 강촌 한의원

(732)287-8881  
1734 Lincoln Highway Rt. 27, Edison  
에디슨 H-Mart 앞 확장 이전

진료  
안내  
한의 내과  
산부인과  
소아과  
통증과  
교통사고 후유증  
각종 한약(보약, 치료약)  
침, 뜸, 부항  
중국어 통역 서비스

# HONORS REVIEW East Brunswick

SAT, ACT, APs, Enrichment Programs  
우성현 스테파노 732-254-3349  
3 Lexington Ave East Brunswick NJ 08816

# ND EAST BRUNSWICK NEW IMAGE DENTAL LLC

444 Ryders Lane  
East Brunswick, NJ 08816  
Tel. 732-432-8388

J. Woo D.D.S.

# 종합건축 AAMP construction

주택, 상가, 무료 상담 및 견적, 면허, 보험소지  
골지 아픈 문제(건축허가, 누수), 비닐 담장, 데크, 마루, 욕실, 주방,  
지하실, 상가 리모델 등 건축 전반에 책임사공(기본 1년 보증)  
저렴한 비용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성당 교우 10% DC)  
**732-964-9787**  
email: aamdconstruction@yahoo.com

# 가고파여행사

성지순례, 단체관광, 크루즈 전문  
201-802-0820  
353 Broad Ave. Suite 203 Leonia, NJ 07605

# BOYLAN Funeral Home

Edison 732-572-0076



# SANSONE AUTO MALL

BEST CAR, BEST PRICE

90-100 RT.1 Avenel NJ 07001

**Manny Kim**  
201-852-3232



부활  
제 4주일

2020년  
5월 3일



미사 시간 안내

평 일 (영어미사)

화요일 - 7 : 00 PM  
수 ~ 금 - 9 : 00 AM

주 일 (한국어/영어 미사)

토(특전/영어) - 4 : 00 PM  
일요일 (영어) - 8 : 00 AM  
(영어) - 10 : 00 AM  
(한국어) - 11 : 30 AM

사무실 안내

주소: 122 High Street  
South Bound Brook, NJ 08880

# Tel: 732-356-1037  
# Email: office@edisonkcc.org  
# 근무시간: 화~금 10am~3pm

http://www.edisonkcc.org

## 에디슨한인천주교회

주임신부  
이남중 스테파노

본당부제  
윤석로 이나시오

평협회장  
한상철 빈센시오



# 에디슨한인천주교회

OUR LADY OF MERCY PARISH



<나는 양들의 문이다>  
요한 10,1-10

## <이번주 전례 안내>

# 제1독서 사도행전 2,14-36-41  
# 화답송 시편 23(22),1-3-3-4-4.5.6(© 1)  
# 복음 요한 10,1-10  
후렴: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으라.

# 제2독서 베드로 1서 2,20-25

# 복음환호송 요한 10,14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 복음 요한 10,1-10  
<나는 양들의 문이다.>

<주간 말씀 전례>	제 1독서/제2독서	복음 말씀
월요일 5/04/20	사도행전 11,1-18	요한 10,11-18
화요일 5/05/20	사도행전 11,19-26	요한 10,22-30
수요일 5/06/20	사도행전 12,24-13,5-7	요한 12,44-50
목요일 5/07/20	사도행전 13,13-25	요한 13,16-20
금요일 5/08/20	사도행전 13,26-33	요한 14,1-6
토요일 5/09/20	사도행전 13,44-52	요한 14,7-14
일요일 5/10/20	사도행전 6,1-7 베드로 1서 2,4-9	요한 14,11-12

## 미사지향

### 연미사 (봉헌자)

- 정영옥 (수산나) - 가족, 채 바오로, 채 데레사
- 김정순 - 가족
- 김상기 (요셉) - 가족
- 조원봉 (빈첸시오) - 가족
- 장인석 (미카엘) - 가족
- 이화자 (마틸다) - 가족
- 김명자 (헬레나) - 가족
- 김교식 (야고보) - 가족
- 한정숙 (레지나) - 가족

### 생미사 (봉헌자)

- 오홍순(카타리나) - 오.사.모, 홍 비안네
- 전선희(다니엘라), 전선임(아네스) - 가족

## 교무금 납부 안내

정영철(3-8)	백영숙(3-8)	전광수(3-4)
정진오(1-4)	채희백(5-6)	오용운(4-5)
김동근(7-12)	나채국(5-12)	안현정(1-12)
합계: \$3,445		

## 감사 헌금 납부 안내

백영숙(\$100)	한상철(\$100)	김영필(\$150)
정진오(\$100)	오용운(\$200)	안형정(\$200)
합계: \$850		

## 주일 헌금 납부 안내

합계: \$6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일헌금, 대축일 감사헌금, 2차 헌금, 교무금, 감사헌금 - Payable to OLM</li> </ul>

## 2020 Bishop's Annual Appeal

- 교구청으로부터 받으신 Bishop's Annual Appeal 봉투를 직접 교구청으로 보내시거나 사무실로 전달하시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헌금액은 지속적 복음화와 선교사업, 신학생, 청소년 양성 및 가난하고 소외된 취약계층을 돕는데 사용되며 2020년 본당 할당금액은 \$35,000입니다.
- 3월5일까지 약정된 금액은 \$9,085 (26%) 입니다

## 공지 사항

**# 코로나 19 바이러스 관련 하여 모든 회의 및 모임을 일시적으로 중단합니다. 필요한 사안에 대한 결정은 단체장을 통해 전달해드립니다.**

**# 매일미사 책 배부 안내**  
 -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 매일미사 책 배부는 잠시 중단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사제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번호: 732-356-1037

**# 견진성사 신청자 모집**  
 - 세례를 받으신 분들 중 견진성사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 또는 이서형(요안나) 선교분과장님께 연락바랍니다.

**# 2020-21 예비자 모집**  
 - 예비자 교리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 또는 이서형(요안나) 선교분과장님께 연락바랍니다.

**# 2020년 한국성지순례단 모집**  
 - 일시: 2020년 10월 20일 ~ 10월 30일(10박11일)  
 - 지도사제: 이남웅(스테파노) 신부님  
 - 순례지: 제주, 부산, 전주, 대전, 청주, 수원, 서울대교구 성지, 임진각 파티마 평화의 성당 남북통일 기원미사 후 서울귀환  
 - 참가신청비: \$3,000  
 - 신청방법: 여권카피와 예약금 \$1,000 (선착순 25명)  
 - 신청 및 문의: 사무실 / 마리아 투어 212-594-7773

**# 환우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정영철 프란치스코, 최규학 프란치스코, 고건철 안토니오, 이정우 바오로, 김진철 요한, 오욱순 수산나, 최경삼 안나, 김경희 수산나, 오홍순 카타리나

**# KCB 가톨릭방송 코로나바이러스 종식을 위한 백만단 목주기도운동**  
 - 코로나바이러스 종식을 위한 백만단 목주기도 운동에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전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모든생활이 마비되었습니다. 그로인해 많은 비지니스, 가족들, 교회 여러 공동체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말로 우리가 목주를 높이 들고 하느님과 성모님께 기도하고 중재청원기도를 해야 할 때입니다.  
 - 목주기도는 4개의 신비(영광, 고통, 환희, 빛의 신비)로 이루어지며 각 신비는 10개의 성모송과 앞뒤로 주님의 기도와 영광송으로 맺는 5개의 단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의 신비를 코로나종식을 위한 청원기도지향으로 바치면 5단이 됩니다.  
 - 레지오 마리에, 울뜨레야, 성령기도회, 성가대, 연령회, 전례봉사자 그 외 신심단체들 그리고 개인으로 모두가 자유롭게 참여가능합니다.  
 - 기도를 마치면 이름과 소속 본당, 단체와 함께 단수를 카톡아이디 KCBNY 로 보내주시면 집계하여 합산하겠습니다.  
 익명 참여도 가능합니다.  
 -문의: 전화 718-888-9130 / KCBNYORG@gmail.com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0,1-10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 우리에 들어갈 때에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자는 도둑이며 강도다.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들의 목자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 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이렇게 자기 양들을 모두 밖으로 이끌어 낸 다음, 그는 앞장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른다. 양들이 그의 목소리를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낯선 사람은 따르지 않고 오히려 피해 달아난다. 낯선 사람들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모두 도둑이며 강도다. 그래서 양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또 드나들며 풀밭을 찾아 얻을 것이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올 뿐이다. 그러나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 신앙 칼럼

###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참행복”에 대한 말씀 - 두 번째 행복 -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두 번째 행복을 살펴 봅시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마태 5,4) 실제로 행복한 사람들은 이 슬픔을 겪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울지만, 마음으로 읊니다. 사막의 교부들은 이에 대해 주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여는 내적 고통(슬픔)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과 이웃과의 새로운 관계를 여는 내적 고통입니다. 성경에서 울음은 두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 누군가의 죽음이나 고통에 대해 우는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은 하느님과 이웃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한 고통으로 마음이 아플 때 느끼는, 자기의 죄에 대해 우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상대방의 고통을 함께 나누거나, 상대방과 깊은 유대를 나눌 정도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관한 문제입니다. 타인으로 인해 우리가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는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냉랭한 방식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의무나 직무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웃이나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눈물을 흘릴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돌처럼 굳은 마음을 지니고 있으며 우는 법을 잊어 버린 사람들이기에, 일깨워져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해서 일깨워져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는 것은 힘들 길이지만, 모든 인간의 신성하고 대체할 수 없는 삶과 가치에 눈을 뜰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역설적인 행복에는 죄에 대한 눈물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선 다음의 것을 식별해야 합니다. 우선, 실수를 해서 화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만심입니다. 반면, 잘못된 일에 대해, 실천하지 못한 선행에 대해, 하느님과 관계를 배신한 것에 대해 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눈물은, 타인을 사랑하지 못한 일에 대한 눈물입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주님께 우리가 제대로 응답하지 못해서 흘리는 눈물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식”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저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눈물이 나면 하느님께 찬미를 드립니다. 베드로 사도를 새롭고도 훨씬 더 진정한 사랑으로 이끌어준 그의 눈물을 생각해 봅시다. 이는 정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눈물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울었고, 그 마음은 새로워졌습니다. 가엾은 유다와는 달랐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실수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죄를 아는 것은 하느님의 은총입니다. 우리는 죄를 알 수 있도록 은총을 청해야 합니다.

언제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비 안에 잘 드러납니다. 사랑과 연관된 고통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지혜롭고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용서하시고 바로잡아 주시는 성령의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언젠가 용서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심지어 가장 추악한 죄까지도 용서해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를 청하는데 지칩니다. 마음의 문을 닫아 버리고,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용서하시려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느님이 “우리의 죄 대로 우리를 다루지 않으시고, 우리의 잘못 대로 우리에게 갚지 않으신다”(시편 103,10)는 분이심을 우리가 항상 명심한다면, 우리는 자비 안에 살고 우리 안에 사랑이 나타날 것입니다.

## 복음 묵상 나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요한 10,7)

1. 가톨릭교회에 들어오게 된 계기에 대해 생각해 보고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불러주셨는지 나누어 봅시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 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요한 10,3)

2.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당신이 양들을 부르고 이끄는 목자임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어서 당신을 양들의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은 그것을 통하여 어떤 곳으로 들어가게 하거나 막는 역할을 하는데 오늘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 당신을 문이라고 하셨을까요?

“그는 앞장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른다. 양들이 그의 목소리를 알기 때문이다.”(요한 10,4)

3. 오늘은 성소주일입니다. 성소란 무엇이라 생각하며 나는 그런 성소를 어떤 경우에, 또 어떻게 받았었는지 삶 속에서 생각해 보고 나누어 봅시다.